

보도 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3. 1. 26.(목) 14:00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서경란 (044-200-5616)

서해 연안 및 남해 일부 연안 '저수온 경보' 확대 발표

- 실시간 수온정보 확인 및 양식생물 관리 각별한 관심 필요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번 주 한파의 영향으로 서해 연안과 남해 일부 해역 수온이 4℃ 이하의 저수온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1월 26일(목) 14시부터 서해 전 연안과 전남 도암만, 득량만 내측, 가막만 해역에 저수온 경보를 상향 발표하였다.

- * 기존 저수온 특보 발표 현황('23.1.26 현재)
 - 관 심: 남해 연안('22.12.9~)
 - 주의보: 사천·강진만(1.25~)
 - 경 보: 함평만('22.12.21~) / 경기만 북부('22.12.28~) / 여자만('22.12.30~) / 천수만(1.4~) / 서해 연안, 전남 도암만, 득량만, 가막만 ('23.1.26~)

국립수산과학원은 당분간 한파의 영향으로 1월말까지 서·남해 연안의 저수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특보 발표 해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주요 연안 수온(1.26. 08시) : 천수만(3.0℃), 가막만(3.5℃), 도암만(3.4℃), 사천강진만(3.5℃), 통영(9.4℃)

** 저수온 특보 발표기준 : (주의보) 수온 4℃ 도달, 전일대비 3℃ 하강 또는 평년대비 2℃하강
(경 보) 3일 이상 수온 4℃ 이하 지속, 전일대비 5℃ 하강 또는 평년대비 3℃하강

해양수산부는 특보 발표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권역별 현장대응반 운영으로 양식장에 대한 현장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양식어장 관리요령 지도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1월 말까지 저수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권역별 현장대응반 철저 운영 등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현장에서도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확인하는 등, 양식장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립수산물과학원 누리집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www.nifs.go.kr/risa)’ 및 ‘수온정보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담당 부서 <총괄>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한성민 (044-200-5614)
			사무관 서경란 (044-200-5616)
	국립수산물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책임자	과 장 정래홍 (051-720-2210)
		담당자	연구관 한인성 (051-720-2230)
			연구사 이준수 (051-720-2231)
	국립수산물과학원 양식연구과	책임자	과 장 황형규 (051-720-2410)
		담당자	연구관 남보혜 (051-720-2420)
			연구사 최 진 (051-720-2431)

